

## ◇흉골우연 소절개를 이용한 개심술

천중록, 이응배, 전상훈, 장봉현, 이종태, 김규태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최근 개심수술을 할 때 종전의 흉골정중절개술 대신에 여러 가지 방법의 최소침투수술들이 시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저자들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최소 침투수술중에서 흉골우연 소절개를 이용한 개심술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임상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7년 4월부터 1998년 8월까지 흉골우연 소절개로 수술받은 개심술환자 총 18명 [A군]에 대해 1997년 4월 이전 3년간 흉골정중절개술로 개심술을한 환자중, A군과 술전 진단과 상태가 유사한 환자들을 대조군 [B군]으로 하여 임상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평균연령은 A군은 35.5세, B군은 36.1세였다. A군에는 심방중격결손과 승모판질환이 각각 9명이었고 B군은 심방중격결손이 25례, 승모판질환이 16례였다.

**결과** : 수술시간, 체외순환시간, 대동맥차단시간은 심방중격결손의 경우 A군에서는 268분, 82분, 40분, B군에서는 180분, 53분, 32분이었고 승모판질환의 경우 A군에서는 267분, 106분, 70분, B군에서는 207분, 82분, 58분으로 각군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술후 호흡기 의존 시간과 중환자실 재실기간, 술후 재원시간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합병증은 A군에서는 기흉 3례 및 중격동 혈종 1례 등이 있었고 B군에서는 기흉 3례 및 심낭삼출액 2례 등이 있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양군에서 사망례는 없었다.

**결론** : 흉골우연 소절개로 최소 침투수술을한 경우에 미용적인 면에서는 우수하였으나, 수술시간은 오히려 길었고 회복기간과 합병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책임저자: 이종태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발표자: 천중록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